



2020학년도 1학기

# 학습경험나눔 에세이 수상작품집



덕성여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인사말

덕성여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매년 「덕성인이 추천하는 좋은 강의 에세이」와 「학습경험나눔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하여 학생들 본인에게 의미 있었던 강의에 대한 경험과 학습전략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성인이 추천하는 좋은강의 에세이」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학습자의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수님들의 어떠한 지원과 노력이 학습자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며, 학습에 효과적인지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학습경험나눔 에세이」에서는 오늘날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경험이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학습 경험은 또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며, 훌륭한 학습전략을 전수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두 공모전에는 총 33편의 작품이 응모하여 12편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 독자들은 ‘성장’에 대한 열망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모든 작품이 선정되지는 못했으나, 원고 하나하나가 모두 귀중한 경험과 나눔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학습과 성장의 경험을 나눠준 모든 지원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덕성여대에서의 크고 작은 경험들이 학생들의 밝은 미래에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자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 8. 2.

교수학습개발센터장



# 목 차

## 인사말

### 대상

#### 기략종횡(機略縱橫)

: 그때 그 장소의 어떠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빈틈없는 계략.

홍선영(글로벌융합대학) ..... 7

### 최우수

#### 코로나, 변한 나

박유선(정보통계학과) ..... 15

### 우수

#### 우물 안 개구리, 또 다른 세계를 만나다

남수정(국어국문학과) ..... 20

### 우수

#### 내 삶은 29개의 계란 한 판. 평생 한 계란 없지

안혜림(회계학과) ..... 29

### 입선

#### 외로움을 메우는 여유

노미리(영어영문학과) ..... 35

### 입선

#### ‘나눔’으로써 얻은 것

안소은(영어영문학과) ..... 40



대상

## 기략종횡(機略縱橫) : 그때 그 장소의 어떠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빈틈없는 계략.

홍선영(글로벌융합대학)

### 1장 : 김밥천국을 졸업하며..

많은 사람에게 ‘김밥천국’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분식점, 김밥 사 먹는 곳. 누군가에게 지나가며 보는 일개의 장소일 뿐이지만 내 19살의 이야기가 담긴 이곳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정말 치열했던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밤을 꼴딱 새운 나의 17살, 아무리 공부해도 내신이 안 오른다며 울던 나의 18살, 엄마에게 고집부려 대치동에 다니며 점심으로 김밥천국에서 ‘혼밥’하던 나의 19살 지금 20살의 내가 이 3년을 돌아보면 정말 힘들게 경쟁하며 한없이 주눅들 때도 있었지만 추억은 미화된다는 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닌가 보다. 수능을 준비하며 챗바퀴 속 햄스터처럼 매일 공부하고 학원에 가고 잠깐 짬이 나면 김밥천국에서 참치김밥 1줄을 사 먹곤 했다. 학원에 가는 매주 토요일마다 체크카드 속에서 참치김밥 1줄 3,500원이 빠져나갔는데 이는 지금 생각해보면 배를 채우기 위한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던 것 같다. ‘대학’이라는 한 가지의 목표를 바라보며 큰 강의실에 몇백 명과 함께 웅기종기 모여 수업을 듣던 그 시간과 수업이 끝난 후 김밥천국에 가던 그 길. 그 결과, 나는 덕성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현재 나

는 집에서 등록금 몇백만 원짜리 사이버 강의를 듣고 있다.

## 2장: 집에서의 한 학기

나는 고등학교 생활동안 기숙사에서 3년을 지냈기에 집이 그리웠다. 대학생이 되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내 공간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다. 벅차기도 했지만, 학교를 등교할 생각에 너무 기뻐고 긴장도 되고 설다. 코로나 19가 나의 한 학기 생활을 ‘집콕’으로 만들 줄 모르고 말이다. 오프라인 개강 날이 시간이 지날수록 미루어지더니 한 학기가 사이버 강의로 전환되고 말았다. 물론 대학교의 입장과 지금 학생들의 입장 모두 전염을 조심해야 하고,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은 맞지만 갓 스무 살이 된 새내기에게 동기 한 명 마주칠 기회 없이 한 학기가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었다. 교수님을 뵈 기회도 없이 모니터 속의 교수님만 바라보며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몹시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나는 그것에 맞게 학습 방법과 학습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 3장: 한 학기 사이버 강의

결심한 후, 정말 전공으로 삼고 싶었던 ‘국제통상학’ 전공 강의를 교수님의 한 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열심히 들었다. 지나치듯 말씀하신 내용도 모두 필기를 하고 내가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계산 공식은 ‘나만의 계산 팁’이라는 제목의 노트를 만들어 공식적인 계산 방법은 아니지만, 답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생각해내어 활용하곤 했다. 수학에 자신이 없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당황부터 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나였기에 이 방식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워낙 양이 많은 과목인 만큼 내가 필기한 후의 교안에 다시 메모지를 붙여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암기했다. 이 글을 쓰는 와



중에도 학기 초반에 정말 열심히 했던 내 모습이 생각이 나고, 열정 가득했던 새내기인 자 세라고 제목 붙여도 될 만큼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학생과 나 또한 초반에는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것에 불만이 많았지만 이내 나는 온라인 강의의 장점이 더 드러나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다. 영상을 저장만 한다면 수천 번이고, 수만 번이고 혼자 재생 시켜서 볼 수 있으니 한 줄이라도 놓친 부분을 다시 얻기 위해 강의를 여러 번 또 재생할 수 있었다. 또한, 저장만 되어있다면 내가 편한 시간대에 볼 수 있고, 혹여나 말이 느린 교수님의 강의라면 배속을 하여 들을 수 있다는 점이였다. 이는 정말 오프라인 강의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장점들이다. 이 점에 주목하니 물론 오프라인 강의의 생생함은 없었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큼의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장점을 살려 열심히 공부했지만, 학기 초반에만 반짝할 뿐 나는 나태해지고 말았다.

#### 4장: 러닝투게더 참여

물론 러닝투게더 활동 또한 초반엔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것을 기대하다가 한 학기가 사이버 강의로 전환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이지만 나는 러닝투게더를 통해 스스로 얻은 것이 많았다. 먼저 비교과 활동으로 러닝투게더를 하고자 마음먹은 것은 점점 나태해지는 내 모습을 자각한 후였다. 계속 이렇게 지속하다간 후에 치르게 될 시험에서 정말 나는 최악의 점수를 받겠다는 자각을 하고 이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려고 결심했다. 준비과정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비교과 활동 정보가 업로드되면 먼저 공지해주고 알려 주신 고등학교의 담임선생님과 같은 존재가 대학교엔 없으므로 모든 정보를 스스로 떠먹어야 했다. 이 비교과 프로그램의 존재부터 참여 방법, 진행 방법에 대해 홈페이지의 각종 항목을 참고한 후 팀원들을 모으기로 했던 것 같다. 팀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한 학기 사이버 강의로 인해 나와 함께 입학한 다른 학우들을 서로 모른다는 것이었다. 얼굴도 모르고 대화도 해보지 않은 상대에게 말을 걸고 함께 팀을 꾸려가자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직접 경험해보니 물론 쉽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에게 이는 색다른 경험이었고 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면 정말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물쭈물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보다 먼저 말을 걸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팀을 제작하고, 추구하는 방향을 대략 세웠을 때 내 의견과 정확히 맞는 사람이 존재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전공 2과목에 대한 러닝투게더 계획을 세웠는데 한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들도 많았고, 2과목 모두 수강하지만, 함께 참여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약간 힘들었지만 3일의 우여곡절 끝에 팀을 꾸렸고, 팀원들 각자의 시간표를 모아서 모두에게 적합한 시간을 조정하였다. 오프라인 활동을 예상하고 수업이 끝난 후 빨리 도착하기 적합한 장소들로 예약을 하는 등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고 많은 시행을 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팀명을 정하고 학습 방법을 세우는 과정에서 내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 사용했던 학습 방법인데 이는 ‘복습 시트’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복습 시트’는 빈칸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강의를 듣거나 혹은 알아야 할 교재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다시 한번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노트에 필기한 후 핵심 내용이나 헷갈렸던 단어들에 빈칸을 만들어 복습할 때에 스스로 풀어보는 것이다.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에 많은 학생이 함께 있었던 공부방에서는 소음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 생각해낸 방법이다. 특히나 이 방법은 핵심 영어단어를 빈칸으로 만들거나 사회, 역사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나만의 복습 시트 제작 방법을 팀원들에게 제시하니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덕분에 러닝투게더 팀의 주요 학습 방법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내가 자주 이용하던 방법이었지만 혼자서만 했

기 때문에 많은 양일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벅차서 중요한 부분만 복습 시트를 활용할 때가 종종 있었는데 팀원 5명이 함께 복습 시트를 제작하면 학습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이 학습 방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더군다나 나중에 결정된 것이지만 이 러닝투게더 활동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였을 때도 제작한 복습 시트를 팀원들에게 배부만 하면 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 러닝투게더 활동은 전공 탐색 과목 중 국제통상학과 영어영문학 2가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팀원 5명이 모두 수강하는 강의를 국제통상학이었지만 영어영문학도 수강하는 팀원이 많았고, 실제로 2학기에 영어영문학을 수강하고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준 팀원도 많아서 2가지 영역에 대한 복습 시트 제작에 힘썼다. 국제통상학과 영어영문학 두 과목 모두 처음 접하는 영어단어들이 상당히 많았고, 특히 국제통상학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임에도 낯선 어휘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팀원들이 매주 번갈아 가며 복습 시트를 제작할 때마다 이 단어들에 중점을 두고 제작한 덕분에 좀 더 익숙해지고 많이 눈에 익어 시험공부를 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복습 시트의 오답에 대해서는 단어테스트를 진행하여 많이 헛갈려 오답을 낸 단어는 혼자 강의 들을 때 1번, 내용을 정리할 때 2번, 복습 시트를 제작할 때 3번, 복습 시트를 풀 때 4번, 단어테스트를 풀 때 5번으로 적어도 5번은 눈에 익는 효과가 있었다. 혼자 복습 시트를 활용하여 공부했던 고등학교 시절과는 다르게 5명이 함께 참여하다 보니 이 복습 시트를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팀원들과 풀어야 하므로 책임감이 생겨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래서 나에게 이 러닝투게더 활동은 집단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다.

## 5장: 본격적인 시험 준비

러닝투게더 활동을 통해 5명의 팀원과 학습을 하며 이미 교안을 여러 번 읽은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런데도 시험 직전에는 혼자 정리해야 할 시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내 원칙이었고, 온라인 강의로 전환되어 오픈북 시험을 진행함에도 외워야 할 내용을 존재했다.

사실, 대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오픈북 시험을 접하게 되어 다른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오픈북 시험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많은 질문을 했었다. 하지만 별 성과는 얻지 못하여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지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나는 오픈북 시험은 3종류로 분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먼저, 아주 쉬운 시험 즉, 시간도 많고 문제도 쉬운 경우. 이 경우에는 절대평가가 상당히 유리한 방식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번째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문제 수가 많고 시간이 촉박하여 시간으로 압박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시간 싸움이므로 어떤 정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익히고 간단한 내용은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마지막 경우는 문제의 난이도도 높고 문제 수도 많으며 시간도 촉박한 경우였다. 이 경우는 정말 내가 생각한 최악이지만 시험을 준비할 때는 최악도 바라보아야 하므로 이 마지막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오픈북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내가 생각한 이 마지막 방식의 오픈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선 외울 내용은 외우고, 외우기 다소 시간이 걸리는 내용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미리 알아두고,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테니 미리 공식들만 모아둔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이 3가지로 세분화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 나는 어떤 내용을 외울 때 누군가를 가르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는 내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전인 중학교 시절 많이 사용한 방법이다. 내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화장실이나 집의 밀폐된 공간에서 내 앞의 허공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방법이다. 특히 거울이 있는 화장실에서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나의 경우에만 국한될 수 있지만, 자신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기운이 빠져 쉽게 포기하게 되지 않았고,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서 좀 더 크게 들리는 효과가 있어 입 밖으로 나온 말이 귀에도 쉽게 들어간다고 느낀 것 같다. 물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 방법이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위낙 유명한 사실이지만 이 방법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다. 나는 학교 선생님보다는 인터넷 속의 선생님 즉, 인강 선생님이 된 것처럼 교안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때, 외우는 나만의 팁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라는 대화를 학생들에게 건네며 교안을 보지 않고 내가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에게 정답을 말해주는 것처럼 스스로 몇 번 반복하는 것이다. 내가 글씨를 쓰는 속도가 현저히 느

려서 시작한 말 하면서 외우는 방법인데 가만히 앉아서 글씨를 쓰는 정적인 학습 방법이 맞지 않는 학생들은 직접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며 말하며 암기하는 이 방법을 추천하고 싶다. 나의 경우에는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말하면서 외우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어서 가장 빛을 본 학습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우기 다소 복잡한 내용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두는 방법이 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외우려고 생각했지만 많은 양과 부족한 시간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오픈북 시험의 장점을 활용해보자는 생각으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문제의 난이도가 높던 문제 수가 많던 결국 시간 싸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노트를 사용하여 그 노트에 교안의 핵심 단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어영문학 교안의 경우에는 언어 갈등을 둘러싼 다양한 나라들의 예시가 나왔고, 피진과 크레올을 사용하는 다양한 나라들의 예시가 나왔다. 나라들의 이름이 생소하고, 이 나라들이 대부분 식민지 생활을 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를 노트에 00 vs. 00이라고 정리해두어 정보를 찾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통상학도 무역실무 분야에서 단계별로 다양한 과정을 거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 생소한 단어들의 집합이었지만 간결하게 정리를 하여 내용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수월했다.

세 번째로는 계산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학습 방법이다. 앞서 말했지만, 국제통상학의 경우 비교우위 계산, 국민소득방정식 등 고등학교 수학 계산만큼은 아니었지만, 간간이 계산 공식이 존재했다. 강의 하나를 들을 때마다 계산 공식을 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놓은 노트를 한 노트에 정리해놓고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빠르게 적용하여 풀 수 있도록 대비를 해두었다.

전공 탐색 2과목의 시험이 모두 끝난 지금, 오픈북 시험은 내가 분류한 3가지의 방식 안에서 모두 나오게 된다고 느꼈다. 최악도 미리 생각해놓은 덕분에 큰 당황은 하지 않았지만

난생처음 접한 온라인 시험 방식 때문에 제출 시간과 업로드 시간을 고려하다가 미처 전부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 아쉬움이 남는 한 학기였다. 하지만 처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획과 해결해나갈 방법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는 것즉, ‘기략총횡 : 어떠한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빈틈없는 계략’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2학기가 온라인으로 진행될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에 맞는 학습 계획으로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코로나, 변한 나

박유선(정보통계학과)

현재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일이 발생했다. 어찌 보면 작은 세포 하나가 그것보다 훨씬 큰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불편함은 아주 컸다. 안전을 위해 자연스럽게 직장도, 학교도,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나의 행동도 변화가 생겼다.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었다.

처음에는 1~2주 정도 지속될 현상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예상보다 길어지는 비대면 수업 사태에 혼란스러웠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휴학도 많이 고민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다시 오지 않을 4학년이고 학점도 올려야 하는 상황에 급급한 마음이 컸다. 3년이란 대학 생활을 했어도 처음 맞는 환경이라 1학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짜여놓은 시간표대로 생활하던 패턴이 무너지면서 시간적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다.

학기가 시작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스케줄러를 만들었다. 기록해두지 않으면 항상 까먹고 빼먹을 때가 많아 고등학생 때부터 유지하던 습관이다. 주로 핸드폰보다는 수기로 기록하는 편이다. 이번 학기에는 이런 습관이 더욱 도움이 되었다. 스케줄러에는 바뀐 공지사항을 기록해두었다. 그리고 수시로 3가지를 기록하였다. 개인 일정, 출결 과제 마감기한, 팀

프로젝트 회의 일정이다. 스케줄러를 작성하며 세운 규칙이 있었다. 마감기한보다 하루씩 당겨 적어 미리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인지하였다.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출결 과제 제출이 굉장히 중요한 성적평가 비율을 차지하였다. 평소에 마감기한이 돼서야 과제를 하는 성격인지라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나만의 규칙을 세운 것이다. 밑 사진은 실제로 내가 작성한 스케줄러이다. 적어 놓아도 빼먹는 경우가 없게 일정 종류마다 색깔을 두고 기록하였다. 몇 년째 스케줄러를 작성하며 이렇게 복잡한 적은 손에 꼽았지만, 스케줄러 덕분에 이번 학기 과제제출을 지각 하나 없이 제출할 수 있었다.

4월 스케줄러

5월 스케줄러

비대면강의로 학교에 가지 않고 학습하면서 혼자 집중해야 할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교수님의 시선 아래 들어야 했던 강의를 올해는 집에서 혼자 듣게 되었다. 도서관이나 스터디카페 등 남들과 함께 집중할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엔 가지 못하게 되었다. 혼자 학습하면서 타인에 의해, 타인과 함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의지를 많이 했던 것을 깨달았다. 또한, 핸드폰에 의한 집중도 저하가 큰 문제 중 하나였다. 없앨 수 없는 물건이니 있어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생각했다. 처음 시도한 것은 유튜브의 도서관 ASMR을 틀어놓고 공부하는 것이었다. 집을 도서관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자 ASMR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공부하였다. 유튜브는 화면을 나가면 소리가 정지되어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는 점을 활용하였다. 이후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하는 실시간 공부 스트리밍 영상을 보며 같이 공부하는 기분을 느꼈다. 나름에 최대한 이전과 비슷한(타인과 함께하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어떤 날에 집중이 전혀 안 된다면 타임랩스로



공부하는 영상을 직접 찍으며 공부해 보기도 하였다. 앞서 방법들로 휴대전화 활용과 공부의 교점을 만들 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나에게 맞는 방법을 만들어나갔다. 특히 타임랩스는 도움이 많이 된 방법이다. 시험공부를 무조건 독서실 혹은 도서관에서 하였기에 집은 휴식공간이란 인식이 강했다. 휴식공간이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공부하니까 집중도가 낮아진 것도 사실이었고 무엇보다 이해도가 많이 떨어져 같은 수업을 3~4번씩 들곤 했다. 하지만 타임랩스를 시작하니 휴대전화에 의한 집중도 분산이 적어지고 수업 집중할 수 있었다. 녹화되는 영상은 마치 다른 사람과 같이 공부하는 느낌도 들었다. 또한, 동영상으로 저장되니 오늘의 공부한 양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보여주기 때문에 보면서 성취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공부할 때 들어났던 유튜브 영상 목록**



\*타임랩스는 10분은 15배, 20분은 30배로 시간을 빨리 감아 동영상을 저장함

**직접 녹화한 공부 타임랩스**

추가로 한 것이 있다면 다른 전문 서적을 활용한 것이다. 현재 통계학과와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는데, 경영학과 수업을 논리가 정연하고 이에 따른 예시들이 많은 편이라 어려움 없이 비대면 수업에 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통계학과 과목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고 논문까지 작성해야 했던 수업이었기 때문에 비대면강의로 진행했을 때 프로그래밍 부분에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 예시들이 필요했다. 해당 과목의 주 서적 외에도 다른 학교 교수님의 서적, 논문 등을 활용하여 더 넓게 이해하려고 하며 필요하다면 강의도 찾아서 보기도 하였다. 해당 책의 예시들도 풀고 개념정리 해가며 강의를 듣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며 할 수 있는 한 지식 습득에 노력하였다.

스케줄러를 통한 관리, 휴대폰을 활용한 공부환경 조성, 학습 심화를 위한 전문 서적 이용. 이 세 가지가 소란스러운 학기에 학업의 중심을 잡아준 방법들이었다. 사실 엄청나게 색다르고 독특한 방법은 아닐지도 남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었던 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군가가 하는 걸 보고 모방하는 것이 아닌 내가 찾아보고 실현해보고 습득하면서 나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어떠한 것에 새로운 공부법이 될 것이고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공부법이라 생각한다.

무언가 유달리 이번 학기가 새롭게 느껴졌다. 3년 동안 “대학공부”라는 명칭 아래 한 공부가 사실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고등학교 때보다 한 학문을 깊게 공부했지만 나는 비슷한 공부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과제를 하고 시험을 보고 성적이 나오는 똑같은 과정이었다. 교양을 들으며 수업의 다양성과 재미를 느끼기는 했다만 학기가 지날수록 행동적 변화는 점점 적어졌다고 생각한다. 이번에서야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에 늘 같은 모습이 당연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최대치라고 생각한 건 아닌지 의문점이 생겼다. 더 노력할 수 있음에도 익숙한 나머지 “이 정도면 됐겠지?”,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 뭐 괜찮아.”라는 말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나는 항상 “일단 경험하려는 자세여야 얻을 기회가 많지”라는 사고를 지녔고 대학은 실현할 장을 마련해주었다. 해보고 싶으면 해보는 성격인지라 학생회, 봉사, 창업, 광고, 인턴 등 여러 분야를 많이 활동하였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자연스럽게 얻는 것도 많았다. 하지만 이면도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방어적인 자세를 많이 취했다. 행동과 사고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작년에 번아웃이 오기도 했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작은 변화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얻은 성취감도 뛰어났다. 이렇게 조금씩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결과들도 내보면서 성장하는 단계를 밟아가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으니 늘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내가 바뀌고 성장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다.

어찌 보면 사소한 물방울 하나에 강의 물결 전체를 흔들듯이 이번의 학습 기회가 나에게 큰 변화를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여러 물방울이 떨어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전의 방어적인 자세에서 좀 물러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보고 싶기도 하다. 새로운 변화는 나에게 여러 색다른 결과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 우물 안 개구리, 또 다른 세계를 만나다

남수정(국어국문학과)

### 또 다른 세계

경기도 이천의 토박이인 나는 태어나 성인이 되기까지 모든 것을 한 지역에서 경험했다.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은 물론 친구 관계, 아르바이트 경험, 그 외의 모든 것이 이천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우물 안 개구리에게는 당연한 결과였을까? 우물 안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만이 내가 보고 듣는 전부였고 그것만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었다. 이천이라는 우물은 나의 세계였으며 나는 그 너머를 상상조차 않는 개구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 내가 ‘덕성여자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삶은 송두리째 변했다. 나에게 ‘대학진학’은 그야말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해준 하나의 사건이었다.

대학은 ‘또 다른 세계’였다.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했으며, 그들과 늘 시간을 공유했다. 그 자체로 의미 있었다. 세상을 색다르게 바라보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신기하게도 그것은 내가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저마다의 과거를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고 저런 식으로도 생각해 보는 일은 나만의 가치관, 나만의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갖추게(보다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 또 다른 세계에서의 삶은 그렇게 불쑥 나를 변화시켰다.

독일 문학의 거장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기존의 세계를 깨부숴야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나는 내 우물을, 내 세계를 박차고 나가기 시작했다. 대학생활에서의 경험, 그것이 내게는 이만치도 거창한 의미로 자리 잡았다.

## 내가 몰랐던 ‘나’ 발견하기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 당시 ‘이해와 소통 세미나’라는 교양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수업에서 각자 책을 읽고 감상과 해석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내가 말하는 연습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나 털털 편다고?’, ‘왜 입이 안 열리지?’, ‘토의 시간이 너무 싫어’와 같은 생각만 잔뜩 했다. 나름대로 생각을 잘 정리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 자신해왔던 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일지라도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생각만하면 부담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생각을 구체적으로 기록까지 해놓고서 막상 그 자리에 가면 입을 꼭 닫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내 의견이 틀린 것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을 더듬을 것 같은 불안감, 애초에 나에게 집중되는 부담스러운 시선들. 참 이유도 다양하다.

그러다 문득 누군가 내가 말하려던 것과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다. 심지어는 내 생각을 도둑맞은 것 같은 생각까지 든다. 우물쭈물 주저한 것은 나인데도 말이다.

“아, 그냥 말할 걸.”

강의 내내 미련한 생각만 가득하다. 아무리 내 의견이더라도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말

로써 표현해내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닐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아쉬움이 4학년인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생각을 그때그때 표출하지 못하고 껴두면 끈질기게 괴로워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은 무뎌히 잊고 넘길 수 있는 일도 나는 반복해서 꺼내어보는 습관이 있구나.’, ‘후회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고쳐야만 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대학에서 겪는 많은 학습 경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도록 자극한다. 사소한 사건으로도 내가 가진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또 잘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도록 하는 지침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내가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일은 앞으로 보다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까지도 자각하게 도와준다.

나는 그러한 여정에서 말하기 연습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왔다. 기회가 있을 때 무리해서라도 그때그때 생각을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일단 문제적 상황에 과감하게 몸을 내던져 막상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그 때문에 일부러 토의 시간이 많은 강의를 꼭 찾아 수강했던 것 같다.

이런 도전을 반복하다 보니 사람들은 생각보다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쉽게 타인의 주장에 반박하기보다는 수용하려 노력하거나, 조언과 보완의 말을 덧붙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험 덕분에 생각이 맞든 틀리든 일단 토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제는 프레젠테이션 발표자 역할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수행할 만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 조별과제는 대학이 낳은 사회악이다?

조별과제는 대학이 낳은 사회악이다? 제법 일리 있는 말이다. 온전히 혼자 책임지는 개인 과제도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 과제라니, 신경 쓸 부분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심지어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생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최악의 조별과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우스갯소리로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라는 말이 모두의 공감대를 샀을 만큼 사람들은 조별과제에서 상처받는 일이 수도룩하다. 조별과제를 통해 얻은 것이 전문 지식이나 협동심, 소통능력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불신’, ‘사람에 대한 증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그렇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어진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팀원을 만나는 것이 엄청난 행운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운이 좋게도 그런 행운을 경험한 적이 있다. 내가 겪은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팀원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한 팀 프로젝트는 많은 것을 가져다준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조별과제를 수행한 적도 있고 친한 친구들과 팀을 꾸려 ‘덕성글로벌챌린저’에 참가해본 적도 있다. 그런 활동에서 팀원들이 각자 맡은바 임무를 책임지고 수행하여 최종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실 이 자체에서 얻는 교훈이 많다. 다른 사람의 능력에 내가 가진 능력을 더하여 얻는 시너지효과는 소속감과 협동심을 증진시킨다. 이것은 결국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하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경험이 늘어날수록 자료 수집, ppt만들기, 발표하기 등에서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는 역할이 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자신 있는 부분을 담당하여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는 역량이 강화되는 느낌을 받는다. 주로 발표자를 맡은 나는 사람들이 발표를 위해 만들어놓은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하여 발표문을 써야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효

과적인지를 배우게 된 것 같다.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 외에도 사람들과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방법,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실질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자연히 습득할 수 있었다. 팀원들에게 수정할 사항이나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것을 기분 상하지 않게 부탁하는 방법 역시 터득할 수 있었다. 소통능력의 향상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팀원들과의 건강한 관계가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해 대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이처럼 타인과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하는 일은 분명 가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 취업을 위한 대학이 아닌 배움을 위한 대학

대학생활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국어국문학과인 내가 타과의 전공 과목을 수강한 것이다. ‘청년심리학’, ‘소비자 및 광고 심리학’같은 심리학과 과목, ‘초급일본어연습’같은 일어일문학과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다. 그 어떤 압박도 없이 순전히 흥미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기에 무척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분명 존중되어야 하는 일이다. 그렇기에 해당 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대학의 제도는 분명 특별하다. 많은 대학생들이 각종 부문에서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학만의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특히 전공과목일지라도 타과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수준의 과목들이 꽤 있다. 그러니 관심이 있다면 겁먹지 말고 도전해볼 것을 추천한다.

다양한 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일도 말 그대로 ‘교양’ 수준에서 흥미롭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특히 ‘유럽문화와 관광’이라는 교양 과목을 통해 유럽의 여러 국가에 관심이 생겨, 실제로 한 달가량 유럽여행을 다녀온 나로서는 교양 과목이 인생에까지 영향을 준 셈이 된다. 비슷한 맥락으로 ‘음악의 이해와 감상’을 통해 클래식 매력과 순



기능을 느껴 일상생활, 공부를 할 때에 그것을 여전히 듣고 있다. 교양 과목은 여러모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꿀강’을 선호한다. 시험이 쉽거나 과제가 없으며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는 강의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에서만은 다양한 방면에서의 지식들을 만족하리만치 얻어가기를 바란다. 취업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을 소비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주소이지만, 대학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배움을 위한 공간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예비 26번 추가 합격생이 수석이 되기까지

덕성여자대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수시 전형에서 불합격을 경험하고 예비 26번을 받은 끝에 겨우 추가 합격되었으니 말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입학하고서 생각했던 것이 힘들게 얻은 기회인만큼 4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살아보잔 것이었다. 그래서 학점관리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차석을 거쳐 수석이 되기까지 그런 내 대학생살에 대한 사명감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사실 나는 흔히 똑똑하다고 말하는 부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영락없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노력파’일 뿐이다. 때문에 저장하게 학습법이라고 할 것까지야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이야기할 수 있겠다.

키워드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1.정성 2.효율성 3.용기 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정성’, 말 그대로 공부하는 것은 정성을 들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시간 투자’와 관련된다. 결국 모든 공부는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즉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느냐에 달려있다. 앞서 말했듯 한번 보고도 외울 만큼 똑똑한 스타일은 아닌지라 ‘최소 3회독’

을 전제로 반복할 수 있을 만큼 반복했다.

공부하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 똑같은 내용을 몇 번씩 반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나는 점층적인 반복법을 선택했다. 첫 번째에는 단순히 키워드를 중심으로 훑으며 이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후 빠르면 두 번째, 늦으면 세 번째에 가서야 문장 단위로 풀어낼 수 있을 수준으로 진지한 암기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외워야 한다!’라는 강박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될뿐더러, 똑같은 방식의 단순 반복이면 지루함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점층적으로 공부했다. 먼저 가볍게라도 ‘이해’라는 초석을 다져 놓으면 자연스레 암기 시간은 단축되기 마련이다.

공부는 사실 막상 시작하면 별 것 아니지만 책상 앞에 가 앉기까지가 힘든 것이다. 그렇기에 일단은 대충 한번 읽어나 보자는 생각으로 책상에 앉는 것부터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정보들은 내 것이 되어간다. 온전히 이해가 돼야 외워지는 만큼 내용을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들여야 한다. 한번 보고 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과목당 최소 3번은 책상에 앉자.

두 번째 ‘효율성’은 동일한 시간을 쓰더라도 좀 더 효율적이게 공부해보자는 것이다. 어떤 정보를 암기하는 데 있어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 필요한 때에 꺼내어 쓰는, 즉 ‘인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그렇기에 이 인출을 자극하는 공부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단순히 글로 쓰거나 읽지만 말고 내 언어로 꼬집어내보자. 스스로 몇 가지 간단한 문제를 만들고 그에 대한 답을 달아보자. 나아가 연상되는 이미지나 기존의 지식과 강력하게 연합시켜 인출을 유도할 수 있는 ‘인출 단서’를 만든 후 이 단서를 이용해 밥 먹을 때, 양치할 때, 길을 걸을 때 등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습관을 갖는 것이 확실한 이해와 암기의 지름길이 된다.

또 내용을 ‘에피소드화’시키는 것이 효율을 높여준다. 이것은 결국 ‘응용’의 문제와 연결된다. 어떤 정보든 내 일상의 사건들과 친근하게 관련되어질 때 이론으로 남는 것을 넘어 상식적인 지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렇기에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경험을 갖다 붙여서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정서의 이해와 조절’이라는 강의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그 중 ‘정서 초점적 방략’이라 하여 내가 느끼고 있는 부정적인 정서를 직접적으로 바꾸려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워서 우울함을 줄여보려는 노력이 그것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친구가 술 마시는 장면을 떠올리며 ‘친구가 정서 초점적 방략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구나.’식으로 구체적인 에피소드와 연결시켜 외워보는 것이다. 또 매장의 배경음악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배울 때는, ‘맥도날드가 바쁜 시간에 빠른 템포의 배경음악을 사용했던 것이 사람들의 빠른 행동을 유도하려고 했던 거구나.’처럼 외울 수 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응용하는 일은 주어진 정보를 진정 내 지식으로 흡수해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결국 나의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는 주로 ‘7’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7과 관련된 것이라 외우고 ‘9’는 소녀시대 멤버 수가 9명인 것과 연관 지으며 ‘1907년’과 ‘1914년’이면 7과 14가 배수관계라는 것으로 외운다. 각자의 맥락에서 편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이 암기력을 상승시킨다.

세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잠시 미뤄둘 수 있는 ‘용기’이다. 남들이 놀 때 함께 놀고 싶고 지금 이 순간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다.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란 분명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갖춰야하는 요소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과 함께 적절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해놓은 목표를 수행하지 않았을 시 어떤 부정적 상황이 도래할지 불안해하는 과정이 학습 동기가 되고는 한다. 물론 ‘내일의 일은 내일의 나에게 맡긴다.’는 생각으로 종종 할 일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렇게 해도 감당할 수가 있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면 문제 되지 않겠지만 그것에

대해 회의감이 든다면, 그런 자신이 한심하다면 그때는 나 자신을 큰 용기를 가지고 바꿔야  
만 한다.

## 내 삶은 29개의 계란 한 판. 평생 한 계란 없지

안혜림(회계학과)

고등학교 때의 나를 생각해보면 참으로 모순적인 아이였다. 늘 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삶의 한계를 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난 뭐든 할 수 없는 아이였다. 난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그 끝은 제한이 있었다. 몇 살엔 결혼을 해야 하고, 몇 살엔 아이를 낳아야하고 심지어는 아이의 성별마저 정해져있었다. 그리고 그 게 내 삶의 제약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까지 사회적으로 “이런 게 좋다.”고 정의되어있는 허울 좋은 것들을 내 훈장처럼 갖고 있어야했던 아이였다. 그래서 내 미래를 그릴 때면 늘 자가당착에 빠졌고,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대학만 가면”이라는 말을 마법처럼 사용하곤 했다.

그렇지만 나의 바람보다 낮은 수능점수에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던 그 생각마저 사라지고 내게 남은 것은 내 삶의 한계뿐이었다. 처음 회계학과에 입학했을 때 “나까짓 게 어떻게 회계사가 돼?”라고 생각했다. 특히나 유능하신 교수님들을 보며 “나 까짓 게”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게임을 할 때,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면 체력 40/100, 스킬 50/100, 치료 40/100 등의 능력이 보이듯 은연중에 어떠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고, 그 평가는 고스란히 내 스스로를 평가하는 지표가 되었다. 그 평가 속에서 나는 평균 이하였고, 뭘 할 수 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서 회계학과, 경영학과라면 누구든 꿈꿔볼만한 “회계사”에 대해 생각조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재미있었고, 내 전공에 자부심이 있었다. 회계라는 글자를 정시 모집할 때 처음 본 “회계 문외한”이었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었다. 나는 명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를 좋아하는데 회계가 그랬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가치투자동아리에 들어가 재무상태표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 동아리를 통해 대외활동을 하며 좀 더 재무상태표와 친해졌다. 회계사라는 어려운 시험이 있는 직업과의 타협으로 애널리스트를 꿈꿨다. 그러나 나의 한계는 깨지지 못했다. 주식투자 자체의 매력에 이끌리는 것보다, “여자”라는 한계에 부딪혀 또 다시 좌절하고 말았다. 어떤 업계에서 “여성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걸 타파할 생각조차 없이 기가 죽어 나가떨어졌던 것이다. 부끄럽게도 나의 20대 초반은 그렇게 한계 속에 갇혀있었다.

주식투자라는 꿈을 그렇게 허망하게 포기한 뒤 “여자는 공무원이 최고.”라는 말에 맞게 공무원 준비나 해야하나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공무원 역시 몇 년을 매달리는 시험이기에 큰 고민이 앞섰다. 딱히 그땐 결혼에 대한 생각도 사라지고 있던 터라 부담도 없을 때였는데 막연히 안한다고 생각했을 뿐 여전히 사회에서 정의내린 “정상적 여성”의 길을 포기할 순 없었던 거 같다. 아예 한국이란 나라를 벗어나 국제 회계사자격증을 따볼까 고민도 해보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나고 자라 영어도 현지인만큼 하지 못하는 나를 누가 써줄까 고민이 됐다. 우리나라에서 한국말 못하는 외국인이 CPA를 통과한들 회계법인에서 “한국인”만큼 일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에 빠져있었다. 그리고 외중에 개강을 하게 됐다. 주식투자 동아리와 대학생활을 줄곧 함께 해온 나는 소소하게라도 무언가 하고 싶었고, 큰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멘토링을 찾아냈다. 여성회계사 전무님과 멘토링이었다. 전무라는 높은 직업까지 가신 현직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걸 보면 아마 나는 은연 중에 회계사라는 직업을 계속 꿈꾸었던 게 아닐까 싶다.

멘토링을 하며 전무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전무님께서 회계사에 합격했을 당시에는 여성회계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 알음알음 서로 다 아는 사이였다고 했다. 전무님

이 입사 당시 그 법인의 최초의 여성 회계사였고, 그래서 전무님이 회사를 다니시던 중 임신을 하셨을 때, 그 법인의 최초 육아관련 규정이 생겼다고 한다. 여성의 파이가 너무 작단 핑계로 애널리스트를 만렙했던 나로선 이미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그때 전무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덕성여대면 안숙찬 회계사님이 계시지 않나요?” 내가 화들짝 놀라며 맞다고 저희 교수님이라고 대답했고, 전무님께선 여성 회계사가 적어 그 때쯤 회계사가 되신 여성분들은 다들 서로 이름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셨다.

나는 내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이었다. 1학년 때부터 내가 뵈어온 교수님은 거의 최초의 여성회계사님이시고, 그 작은 파이를 뚫고 교수님까지 되신 분인데, 그런 분께 수업을 듣고 공부를 했으면서 왜 한 번도 나는 도전하려하지 않았을까. 여성이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오신 분을 교수님으로 두고 있었는데 왜 한 번도 그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을까. 나는 고작 “파이가 작다.”라는 이유로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을까.

나는 “살되, 내 생명으로 살아라.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네가 깨달아 알아라.” 라는 말을 외우고, 좋아하며, 전파하고 다녔으면서 사실 내 스스로에게는 계속해서 한계를 부여하고 그 속에 갇혀있었던 것이다. 그 짧은 대화 후에 집에 와서 나는 곰곰이 나에게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학교 우리 과를 소개하는 멘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난 당당하게 “우리나라에서 선교사의 도움없이 여성의 힘만으로 세워진 최초의 학교”라고 소개했다. 우리 과에선 극한의 남초 직업군이었던 “회계사”라는 직업에 여성의 파이를 기초부터 다잡으신 교수님이 계셨다. 난 그 모든 환경을 알고, 입으로 소개까지 해왔으면서 내면화할 생각은 해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정말 인생에서 사회가 주는 시선을 배제하고, 오직 내 성향과 직업만을 비교해보게 되었다. 그렇게 몇 개월 간 내 성향과 회계사라는 직업을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시험에 자신이 있고 없고를 떠나 나는 회계사가 하고 싶었다. 회계사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재무제표를 언제든 만나볼 수 있었고,

법인에서 근무를 하다 원래 꿈꾸었던 애널리스트를 할 수도 있었다. 내가 잘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냥 도전뿐이었다. 할 수 있을 지 없을 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었다.

일제 강점기, 그것도 여성의 힘만으로 학교가 세워질 것이 쉬웠는가? 아니다. 남자밖에 없어 출산에 대한 회사의 규정이 없던 회계법인에 여성 회계사로 사는 것, 그것도 전향하여 더 파이가 좁은 교수가 되는 것이 쉬웠는가? 아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 학교 안에서 쉬웠던 일은 없다. 그냥 해야했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했던 것이다. 하면 할 수 있다. 그것이 차미리사 선생님의 가르침이었고, 내가 4학년까지 배움을 얻은 교수님의 업적이었다. 나는 내 생각을 가로막던 그 모든 것을 배제하고 오직 한 가지만 내게 물었다. “하고 싶은가?” 내 대답은 긍정이었고, 그래서 시작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다. 학과에서 깊게 배워둔 전공지식이 있었지만, 시험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더 폭 넓은 방향으로 알아야했다. 1년 6개월에서 3년을 목표로 잡고 수험생활을 시작했다. 상당한 양의 공부였기에 신중해야했고, 한 학기 남은 학교를 휴학했다. 그리고 학원 강의를 통해 학습을 시작했다. 처음 중급회계와 원가회계를 시작으로, 고급회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양도증여세, 국세기본법, 경영, 경제, 재무관리, 상법 기초강의를 들었다. 6개월이 걸렸다.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수업을 들었고, 어느 날은 정말 토할 것처럼 힘이 들기도 했다. 자다가 트럭이 밟고 지나간 것처럼 온 몸이 아픈 날도 허다했다. 그래도 그냥 묵묵히 그 날의 할 일을 끝내고 최선을 다했다.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기에 여름부터는 인터넷강의를 통해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하기로 결정했다. 많은 양을 소화하다 몸이 아픈 날이 많았기에 고급회계와 중급회계,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의 많은 세법 두 가지를 중점으로 공부를 하기로 했다. 6개월동안 많이 힘들게 달려온 탓인지, 혹은 나의 의지 부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름 공부는 6개월보단 못한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강은 할 수 있었다. 공부 결과 세법에는 다소 약했지만 재무회계분야에선 강점이 두드러졌다. 마지막 가을과 겨울에는 1차 시험을 위해 객관식 문제에 익숙해져야했



다. 여름에 학습한 심화된 내용은 1차를 합격해야 2차에서 실력발휘를 할 수 있었다. 학교 고시반 현룡전에 “모의고사 스터디” 공고를 붙였고, 연락 온 학우들과 스터디를 했다. 처음 목적은 학원에서 진도체크용으로 본 모의고사를 다같이 주에 한 번씩 풀어 실력을 체크하는 것이었지만, 고시반에서 학우들끼리 CPA스터디를 한 것이 처음인지라 다들 서로에게 좋은 문제집을 추천해주기 시작하면서 간단하지 않은 스터디가 되었다.

진도모의고사를 시작으로, 세법과 상법 말문제 오엑스, 우리가 듣지 않은 강사님의 중급회계 문제집 풀기, 세법 기출실록 풀기, 재무관리 모의고사 모음집 풀기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추가가 되었고 우리 스터디는 원래는 주 3시간이었지만 아침에 오는 시간만 정해두고 가는 시간은 정하지 않는 스터디가 되었다. 그렇게 토요일 아침부터 늦으면 저녁까지 시험에 가까워져서는 주에 두 번도 모이게 되었다. 나를 포함한 네명의 학우들 거주지의 중간인 종각에 모여 스터디를 진행했다. 몇 주 정도만 하려던 스터디였지만 상호 간의 문제집 추천 덕에 몇 달간의 스터디가 되었고, 2월 말인 1차 시험 한 달 전에 스터디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떨어졌다. 4명의 스터디원 중 한 사람만 1차 시험에 합격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다시 도전 중이다. 그러나 이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함께 공부한 사람들 중 누군가는 이겨내고 합격을 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다시 한 번 계획을 짰다. 시험이 끝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의연하게 계획을 짰다.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의 능력보다 중요한 건 나의 마음이었기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나의 몸과 머리는 뒤따라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 1년간 내가 깨달은 것은 회계사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좋은가의 여부보다 성실한가의 여부였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그 단원의 내용을 복습하고, 꾸준하게 반복학습을 하는가가 중요했다. 스터디원 중 하나가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리고 그 스

터디원이 합격했다. 반면 작년의 나는 무언가에 쫓기듯 마음이 급해 외워지지 않으면 일회  
일비하였다. 쉽게 좌절했고, 감정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면  
오늘 외워지지 않으면 내일 또 외우면 되는 것이고, 내일도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모레 외  
우면 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외웠다 까먹으면, 다시 외우면 되는 것이다. 많은 양의 공부를  
한 번에 외우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끼리의 경  
쟁이었다. 나의 작년은 1월부터 6월까지 너무 무리하게 달렸고, 여름에는 다소 풀어졌고,  
그 결과 겨울에는 좌절에 빠져 무기력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나 합격과 불합격의 기로가  
확연히 갈린 지금 그 길이 갈리는 중심에는 “성실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좌절  
속에서도 난 꼭 회계사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했고, 그래서 1차 후에 좌절없이 바로 다시  
도전했다.

이 깨달음을 토대로 나는 다시 일어나 도전할 것이다. 2021년 우리 캠퍼스에 회계학과  
안혜림 CPA 동차 합격 이라는 현수막이 걸리는 그날까지. 내 삶은 29개의 계란 한판처럼  
한 계란 없으니까.

## 외로움을 메우는 여유

노미리(영어영문학과)

돌이켜 생각해보면 대학에 입학하기 전 나의 모든 공부는 단거리 달리기와 같았다. 한 눈을 팔면 레일에서 벗어나기 일쑤였고 호흡마저 계산한 대로 내뿜지 않으면 제시간 내에 완주할 수 없는 코스였다. 곁에 무엇이 있는지 살필 틈도,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급박하고 숨 가쁜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왜 그렇게도 많은지. 쉬다가도 다시 떠밀려 뛸 수밖에 없었다. 정신없이 달려 결승선을 찾아 밟아도 끝나지 않는 여정이었다. 갈수록 좁아지는 레일 위로 뻘뻘하고 촘촘히 줄지어 서, 이탈만이라도 면하겠다고 몸부림치며 모르는 사람들과 어깨를 계속 부딪혔다. 그리하여 비로소 대학교 정문 앞에 당도했을 때, 나는 너무 지쳐 드러누워 있어야 했다.

12년 하고도 1년.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을 단거리 달리기로만 뛰어왔으니 온 몸은 녹초였다. 건방진 보상심리와 거둬된 자기합리화로 1년을 놀며 지냈다. 다시 뛰어볼까 하고 책을 펴니 술과 오락에 절여진 뇌가 부지런히 달리질 못했다. 속도도 안 나고 열의도 없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어깨를 밀어줄 레일 위의 경쟁자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학생이 된 후, 나의 레일 위엔 나 혼자만이 텅그러니 서있었다.

혈떡대며 뛰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나를 추월하기 위해 혈안이 된 불특정 다수가 없다는 것, 레일은 스스로 굿기 마련이고 광활하게 펼쳐진 세계 자체가 주어진

코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습게도 나는 외로움을 느꼈다. 판청을 피우거나 꾸벅꾸벅 졸아도 교수님은 내게 관심이 없었고, 내가 혼자 있기를 희망하면 오롯이 혼자일 수 있었다. 일거수일투족을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간섭받고, 원하지 않아도 친구들과 살을 부대끼며 한 끼 이상을 함께해야 했던 학생 때와는 전혀 달랐다. 들 수 있는 동아리와 소모임, 참여할 수 있는 대외활동과 공모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시큰둥해졌다. 막연하게 펼쳐진 시간과 기회 앞에서 나는 무력감을 느꼈다. 정신없이 달리던 때엔 미처 살피지 못했던 세상의 풍경이, 목격됨과 동시에 실체를 갖고 그 무게로 나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책 앞의 번민은 여유에서 비롯했다.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며 나를 마구 떠밀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다. 그러나 교정은 여전히 평화로웠으며, 학우들은 즐거워 보였다. 관내 안내판엔 기회와 시간을 제안하는 대자보가 계속해서 게시되었으며, 책과 펜을 든 나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단거리 달리기야 종료됨과는 별개로 생의 경주는 영원한 것이라, 완전히 멈춰서 있을 수는 없었다. 어떤 친구는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기 시작했고 동기 몇은 학문에 푹 빠져 대학원에 갈 준비를 한다며 학점 관리에 몰두했다. 치열한 개인전을 구경하며 한 가지 목표를 세웠다. 좋아하는 것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만들자. 학우들을 따라 동아리 이곳저곳을 기웃대기도 하고 커리어센터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에도 몇 번이나 참석했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좋아했던 장르 소설을 읽기도 하고 진로 상담도 받아봤다. 그러나 지도가 틀린 것인지 찾는 이가 글러먹은 탓인지, ‘좋아하는 것’이라는 이름의 보물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지쳐있었고 외로웠으므로 금방 의욕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전공서적을 붙잡고 책상에 늘어졌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이었을까? 달리는 동안 어딘가에 흘리고 온 게 아닐까, 그마저도 기억나지 않았다.

어영부영 3학년이 된 나는 교직이수 과정에 선발됐다. 좋아하는 것도 못 찾을 것 같고,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니,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서 졸업하자는 불순한 의

도에서 비롯한 지원이었다. 그래도 전혀 모르는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된 셈이라 약간의 기대를 갖고 있었다. 발표가 많고 팀 활동도 잦았는데, 힘에 부칠 것 같아 두렵기도 했다. 부푸는 상상과 걱정을 뒤로한 채 개강을 기다렸다. 아주 간단한 의욕이었다. 그러나 이번학기, 나는 현장 발표도 팀 활동도 그 무엇도 경험할 수 없었다. COVID-19의 창궐로 학교는 문을 걸어 잠갔다. 평화롭고 활기찼던 교정은 지나치게 적막하고 고요해졌다. 비좁고 정신없던 레일에서 툭 떨어져 나와 미아가 된 기분에 사로잡혔던 그 때처럼, 나는 또 사무치게 외로웠다. 이번에는 물끄러미 관찰할 학우들의 존재마저 없었다. 무심하고 분주했던 교단 위의 교수님도, 별드는 날이면 빨리 말아두어야 했던 도서관 자리도 부재했다. 코로나는 공간마저 앗아갔다. 나를 짓누르던 풍경에 그 여백의 무게까지 더해졌다. 등교를 위한 수고도, 수업을 위한 준비도 없으니 여유는 곱절로 늘어났다. 그리고 아주 당연한 수순처럼 나는 무기력하게 늘어졌다.

열심히 수능 공부를 하던 때에, 나는 인터넷 강의 보는 걸 좋아했다. 선생님의 재미있는 농담이나 양질의 자료도 만족스러웠지만 가장 좋아했던 것은 ‘되감기’ 기능이였다. 나는 순발력도 재치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습득이 느리고 이해가 더디다. 친구들보다 몇 배는 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점수를 올리거나 유지할 수 있었다. 학교수업은 녹음해 다시 듣거나 되감아 볼 수 없으니 손실은 혼자의 수고로 메꾸어야 했다. 인터넷 강의는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을 몇 번이나 돌려 볼 수 있었고, 똑같은 말을 수 없이 반복해도 선생님은 화내거나 지치지 않았다. 대학교에 입학한 뒤, 몇몇의 친구들이 강의를 녹음해 따로 공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당한 값을 치르고 명시된 계약 안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인터넷 강의 시스템과 달리, 교수님의 수업은 강의실 공간 안에 한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어떤 교수님께서선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빌어 당신의 수업을 절대 녹음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셨다. 수업을 몇 번이고 반복해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녹음의 이점은 유혹적인 것이다. 특히 나처럼 학습이 더딘 학생들에게는 더욱 뿌리치기 힘든 꿈수다. 그러나 나는 팔이 빠지게 필기를 할지언정, 허락되지 않은 수업은 절대 녹음 하지 않았다.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

하지 못하는 과업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손실이라는 것을, 단거리를 달리는 동안 뼈저리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온라인 개강을 맞이한 뒤 수업 자료를 파일로 제공받으며, 나는 입학 이래 처음으로 느긋하게 수업을 들었다.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만 만끽할 수 있었던 여유였다. 헛갈리는 부분은 몇 번이고 반복해 설명을 들었고, 교안을 필기해야 할 땐 화면을 멈춰두고 꼼꼼히 내용을 적었다. 혼자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주어지다 보니 공부하는 시간도 자연스레 늘었다. 원격 수업의 순기능이었다. 강의실에서 전투적으로 수업을 받아 적을 때 보다, 편한 마음으로 듣는 교수님의 음성이 훨씬 마음에 오래 남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여유가 생긴 것은 대학에 처음 입학했을 때와 같은 변화였는데, 이번 여유는 나를 막연히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 천천히 생각하고 오래 외우며 오히려 잡념을 떨쳤다. 그동안 내가 집중하지 못했던 까닭은 수업을 듣는 부담감에서 비롯한 것이었을까. 나를 짓눌렀던 풍경을 천천히 둘러보며 책을 읽었다. 정신없이 달릴 땐 돌아볼 수 없었던 것들과 함께 공부했다. 답을 찾는 것에만 몰두했던 학습과는 궤가 달랐다. 쟁점이나 키워드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문장 자체를 공들여 읽었다. 출제의도를 간파해 정답을 골라야 한다는 의무를 뒤로하고 내 생각을 투영했다. 독서하듯 전공 책을 읽었고 모르는 것은 메일로 질문했다. 한 번도 빈 적 없는 교수님께 메일을 드리는 일은 어쩐지 어렵지 않았다. 대면 소통의 단절은 나에게 있어 오히려 교수님의 존재를 멀고 어려운 어른이 아닌, 친밀한 학습 주체로 여기게끔 유도했다. 거듭 메일을 드린 탓에 어떤 교수님께선 얼굴 한 번 본적 없는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도 하셨다. 과제 한 개가 누락된 것 같다며 보내오신 메일 끝자락에 ‘노미리 학생이 안녕 리가 없는데^^’ 라고 써져있던 문장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다.

메일은 코로나 시대의 훌륭한 소통 도구로 기능했다. 수신확인 체제가 있어 송수신의 과정을 언제고 증명할 수 있다. 이번학기 이수한 교직과목 중 하나는 발표과제가 평가 방식에 포함되어 있었다. 강의실에 모여 발표를 들을 수 없으니, 학우들은 각자 발표 자료를 제

작해 다른 학우의 메일에 송신했다. 발표를 들은 뒤 동료 평가서를 써서 해당 학우의 메일로 송부하고, 받은 동료 평가서를 취합해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제가 진행되었다. 복잡해 보였던 과정이지만, 몇 번 반복하다보니 익숙해졌음은 물론 생각보다 무척 간단했다. 제공된 학습 자료를 통해 꼼꼼하게 공부하고, 습득된 지식에 내 생각을 덧붙이고, 그것을 학우들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했다. 일련의 과정은 여유롭게 진행되었고, 학우들과 교수님의 평가를 받으며 학문적 지식 역시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코로나 시대의 대학이기에 시도해야 했던, 다양한 교수법 탐구의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천천히 걷는 공부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하고 싶은 일 또한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나를 침잠시키던 무력감의 정체를 이제는 안다. 그것은 외로움이자 여유다. 너무 많은 시간이고 기회이며 부담이다. 이전의 나는 느리고 여유로운 공부가 낯설어 시공간의 여백이 주는 외로움에 쉽게 패배했다. 그러나 다시듣기와 다시보기가 가능한 오늘날의 공부는 외롭기에 평화롭고 여유로운 것이다. 책 앞에 혼자임이 덜컥 실감날 때면 문장을 곱씹어 읽고 행간 사이를 사유와 탐구로 메꾸면 된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고 메일을 보내 질문할 수 있고, 또 어느 때고 그 감사함에 답할 수 있다. 때 지어 급박하게 달려야만 했던 단거리 코스에서 벗어나 세상은 지나치게 넓고 광활함이 틀림없지만, 그 장엄한 허허벌판은 자유를 표상한다. 대학의 학문은 막연하고 외로운 것이지만 그래서 자유롭다. 존재의 번민에서 벗어나 줄 수 있을 만큼 학문에 몰두하는,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는 학습주체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대학의 존재가치가 아닐까. 너무 어려운 것은 아직도 막연하기만 하다. 나는 더 이상 좋아하는 것을 찾아 헤매지 않기로 했다. 이따금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그 사이를 여유로 메워갈 수 있는 학생이 되고 싶다. 무심한 여백과 마주할 때면 천천히 사유하여 그 틈새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지금의 나에겐 한 가지 목표다.

## '나눔'으로써 얻은 것

안소은(영어영문학과)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이는 대학생이 되어 가장 와닿았던 말이다. 나눈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나누면서 그 가치는 확장되고 빛을 발한다. 따라서 봉사활동, 멘토링, 그리고 파견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배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나만의 학습 이야기를 서술하고자 한다.

### 1. 봉사활동- '시간과 열정'을 나누다.

대학생이 된 이후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나의 시간과 열정을 나누었다. 1학년 때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동행 프로젝트'의 동생 행복도우미로서 1년간 교육봉사활동을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봉사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모든 봉사자는 대학생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해야만 했다. 동행학 개론과 동행 실천론이라는 과목명으로 시행된 기본교육은 나눔과 베품, 봉사란 무엇인지, 봉사자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어떤 것인지 설명하며 진행되었다. 그저 봉사활동이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정된 일반 수행하면 된다고 단순히 생각했던 내게 참여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봉사의 의미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일깨워준 시간이었다. 중고등학생 시절 필수 봉사활동 시간 탓에 시간 채우기 좋은 활동과 몸이 편한 봉사활동만을 찾았었기 때문에 봉사 개념이 더 새롭게 다가왔다.



기본교육 수강 후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한 학기 동안에는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학생 숙제 도와주기 및 신체 놀이 지도를 담당하였다. 내가 졸업한 초등학교에서 활동을 신청했기에 더욱 설렘과 기대를 품고 활동하려고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의 감정 기복이 심하였고 예측 불가한 행동이 많아 아이들을 잘 다루기가 무척 어려웠다. 특히 한 아이가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는 수학 숙제를 퍼자마자 난리를 피우며 울지만, 간식 시간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면서 간식을 가장 먼저 배급받고 가장 빨리 먹은 뒤 해맑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여 문제아로 지적받던 아이였다. 그런 행동을 지속하면서 숙제를 계속하지 않아 걱정이 커졌고 동생 행복 도우미로서 사명감에 휩싸여 줄곧 문제해결을 위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기본교육에서 배웠던 동생들과 소통하는 전략을 되짚어 보았다. 동생들의 말에 먼저 경청하고 충분한 공감을 바탕으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전략을 토대로 하여 수학 숙제를 피기 전에 그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 아이는 수학을 못 하고 매번 답이 틀려서 수학에 거부감이 컸다고 말을 이었고 사실은 수학을 잘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드러냈다. 이에 가장 쉬운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알려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추가 수업을 시작했다. 점차 아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은 반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다. 만약 내가 그 아이를 문제아로만 낙인찍어 끝까지 내버려 두고 다른 아이들에게만 관심을 줬다면 그 아이는 계속 숙제 제출을 못 할 것이고 수학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봉사 인정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활동에 참여한 것이어도 후회하지 않았다. 내 시간을 나누면서 얻게 된 보람과 뿌듯함, 성취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중한 봉사 경험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고 보다 열정적으로 봉사에 참여할 수 있던 계기가 되었다.

다음 학기에는 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 및 독서를 지도하였다. 운이 좋게도 봉사 첫날이 축젯날이어서 영화 발표회에 참석해 학생들이 제작한 창의적인 단편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었다. 다채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학생들 시선에서 바라본 세상과 작품 세계는 상업적인 영화들과는 사뭇 달라 매우 흥미로웠다. 영화 제작부 외에도 밴드부, 인터넷 게임 참여 활동 등 대입과는 거리가 먼 동아리 모임들이 다양했는데 이는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상 대입보다는 취업에 집중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은 도서관을 구경하다가 만화책이 많은 것을 보고 사서 선생님께 내가 다닌 인문계 고등학교 도서관에는 만화책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사서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학생의 상상력과 창의력에 제한을 두게 되는 것이라고 답하셨다. 만화책을 본다고 성적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 들일 책을 고를 때는 학생이 스트레스받지 않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책을 찾는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다. 나는 주된 목표가 대입인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기에 이런 사소한 차이부터 시작해 자유로운 학습활동이 제공되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습환경이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자극으로 다가왔다.

작년에는 한국 공공외교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국제행사인 '외국인 홍보대사 임명식'과 '제1회 세계 공공외교 포럼'의 행사지원 및 보조 담당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기획 담당자 분께 봉사 열정을 인정받아 행사지원을 하면서 외국인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토론 참석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국과 외국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는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들 간의 사고의 차이를 이해함과 동시에 소통 능력과 국제적 관점을 기를 수 있었다.

이후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인 생각나무 BB센터에서 '모두 하나 대축제' 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과 다문화 체험 및 퀴즈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이 가진 다문화에 관한 선입견을 알게 되었고 스스로 어떤 안일한 편견에 사로잡혔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다양한 가족 형태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과 교육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이처럼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배움은 무궁무진하다. 다양한 봉사에 자원하면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본인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봉사 기관 담당자분과 봉사자분을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고 긍정적 영향을 전달받기도 한다. 나의 시간과 열정을 나누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해 얻은 교훈은 깊고 다채로우며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지다. 이는 언급한 봉사 외에도 영어 캠프 행사 진행 지원, 푸드뱅크 활동업무 보조, 서울애니메이션센터 문화시민 시설 운영 보조, 장난감 도서관 장난감 세척 및 환경 정리정돈,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대여소 이동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0시간 넘게 봉사활동에 참여해오고 있는 이유다.

봉사 참여에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경력을 쌓아 이력서를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한 뒤 면접을 보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봉사자의 시간과 열정을 준비해 기본적인 봉사 정신을 갖췄다면 언제나 실천할 수 있다. 봉사자가 부족한 곳이 많으므로 주저하지 말고 나눔의 손길을 보다 적극적으로 베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2.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 ‘마음과 지식 및 경험 나눔’을 받다.

대학교 3학년 때 한국장학재단 주관 ‘제9기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에 대학생 멘티로서 참여해 멘토님의 따뜻한 ‘마음 나눔’과 매 학습 멘토링에 따른 ‘지식 및 경험 나눔’을 받았다. ‘차세대 리더 육성 멘토링’은 저명한 사회 지도자 멘토와 함께하는 자율 멘토링, 워크숍, 우수 기업탐방, 특별 강연, 취업 특강, 봉사활동 등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지원자들이 멘토와 멘토링 주제를 선택할 수 있다. 당시 진로 방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라는 주제로 진로 탐색을 목표로 하는 멘토링을 택하였다. 첫 멘토링 모임에서는 멘토와 멘티 자기소개, 앞으로의 모임 진행 방향 설정, 개성 및 능력에 맞는 진로계획수립에 관한 간략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멘토님의 과거 대학 생활과 사회생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추천 도서, 대학생이 꼭 갖추어야 하

는 필수 역량도 소개되었다. 학생을 배려하고자 하는 모습과 멘티의 공감을 이끌며 마음을 나누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여 인상 깊었다.

이후 모임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최한 ‘리더십 콘서트’에 참가했다. ‘리더십 콘서트’는 전국에 있는 모든 멘토와 멘티가 모이는 중요한 행사이며 ‘미래 대한민국을 이끄는 배움과 나눔의 인재,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우리’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활동이 펼쳐졌다. 당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민분들께서 참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강원국 교육인, 한비아 국제기관단체인, 이미도 작가처럼 각 분야의 ‘명사’라 불리는 유명인사 분들의 역량개발 강의가 제공되었다. 어디를 가도 보기 어려운 유명인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강의를 직접 듣게 되어 뜻깊었으며 강의에서 배울 점들은 무척 많았다.

나는 문제해결 능력 부문의 이국종 아주대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였고 의사소통 능력 부문에서는 기업인이자 방송인인 마크 테토의 강의를 들었다. 교수님께서는 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면서 실제 응급 현장 영상을 보여주셨으며 문제해결에 있어 협동심과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두 번째 강의를 통해서 의사소통의 핵심은 자신감이라는 것을 되새길 수 있었다. 당당히 한국어로 낯선 외국인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설득력 있게 하며 강연 핵심인 자신감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는 마크 테토 강연자의 모습은 그 어떤 강의보다 열정적이고 흡입력 있었다.

다음 모임은 ‘외부 명사 특강’으로 세계 최대 사료 회사인 카길의 아시아 총괄 회장직을 맡았던 김기용 회장님의 외부 특별 강연이 열렸다. 회장님께서는 경영자의 제1책임이 안전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리더십과 현장 경영에 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셨고 서번트 리더십, 가치중심 리더십, 비전공유 리더십과 같은 리더십 종류를 가르쳐주셨다. 더하여 의사와 행동이 결합해야 의지가 탄생함을 말씀하시며 성공하려면 모두가 행동으로써 실천해야 함을 일깨워주셨다.

회장님의 ‘경험과 지식 나눔’은 자연스레 과거 행동을 성찰하게끔 했다. 내가 그동안 과연 행동을 수반하여 의지를 표했는지, ‘생각’만 한 것으로 의지를 다졌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과거를 돌이켜보고 반성하였다. 강연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인사 잘하기’와 ‘작은 것에 감사하기’를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신 점으로, 사소하다고 여긴 것들이 됴됨이를 드러내는 거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기본적인 것을 당연하게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는지 숙고하게 되었다. 기본이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익숙함에 무너지지 말자는 다짐 역시 굳히게 되었다.

### 3. 파견 학생 프로그램- 나눔을 주고받다.

지난 학기에는 미국 남미주리주립대학교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에서 파견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눔을 주고받았다. 현지인과 교류하면서 문화, 언어, 우정 등을 함께 나누고 추억을 쌓으며 소중한 인연과 영원히 회고할 추억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점을 가장 깊숙이 느낄 수 있었다.

파견 학교 주위 교통이 편리하지 않아 차가 없는 국제 학생은 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상점이나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가는 것, 은행이나 우체국 등 시설에 도보로 이동을 할 수 없었고 차가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점이 처음엔 무척이나 어려웠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러한 불편함을 이해해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는 말과 함께 늘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었다. 국제 학생을 기꺼이 도와주고 위해주는 친구들에게 보답하고자 한국 문화와 언어를 알려주었고 교회 행사나 가족 모임에서는 내가 잘하는 피아노 연주를 보여주기도 했다. 각자 문화권에서 유행하는 재밌는 영상을 공유해 함께 보며 시간을 보내고 종종 한국 음식을 요리하면서 우정을 쌓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학교에서 국제학생과 미국인 가족을 연결해주는 ‘Friendship Family’ 제도를 통해 미국 가정집을 방문하여 미국 문화를 더욱 생생히 체험할 수 있었다. 학기 초반에 함께하게 될 Friendship Family를 만나게 되고 한 학기나 1년간 자율적으로 만남을 이어나가는데 운 좋게도 친절하고 화목한 가정과 연결되었다. 그분들은 항상 내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시고 늘 배려해 주셨다. 국제 학생으로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미국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셨다. 근처에 재밌는 놀거리와 볼거리가 있으면 동행해 추억을 쌓았고 자주 집에 초대해 주셔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눴다. 덕분에 한 학기를 행복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었으며 파견 생활에서 가장 마음 깊이 남는 인연으로 남았다.

이렇듯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모두가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낯선 타지에서 적응하기는 절대 쉽지 않고 외로움, 고단함, 그리고 후회가 누구에게나 다가오기 마련이지만 그 부정적 감정을 파견 생활에서 맺은 인연 덕분에 극복할 수 있었다. 언제나 호의를 베풀고 우정에 언어 장벽이란 걸림돌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이들 덕에 행복했기 때문이다. 찰나의 인연으로 남지 않고 지금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있지 않아도 함께 있음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뛰어난 재능이나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 나는 줄곧 나눔을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가 무엇을 주거나 공유할 역량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선불리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다양한 학습경험으로부터 배운 바에 따르면 나눔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과 열정만 있다면 봉사활동을 통해 손쉽게 나눔을 행할 수 있듯이, 파견 생활에서 미국 친구들과 일상을 교류하며 나눔을 주고받았듯이 나눔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

나눔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나누고, 나눔 받고, 나눔을 주고받으면서 내 삶의 가치관이 확장되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채로워졌다. 나눔을 외면해 위 학습경험을 얻지 못했다면 다양한 경험에 도전하지 못한 채로 빠른 성장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그 가치를 배웠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글을 읽고 나눔을 함께 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 2020학년도 1학기 학습경험나눔 에세이 수상작품집

---

- 발 행: 덕성여자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 주소: (01369)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 전화: 02-901-8817
  - 팩스: 02-901-8487
  - 전자우편: cti@duksung.ac.kr
- 발 행 일: 2020년 8월 11일
- 편집·인쇄: 킨코스코리아(주)
-